

## 12·29 여객기 참사 300일 진상규명 촉구 “유가족이 당사자다”

전쟁기념관 앞까지 영정 들고 침묵 행진  
 진상규명·정보공개·조사위 독립 등 요구  
 유족, 호소문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가 추락한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가 1일 거리에 쏟아졌다.

참사 발생 308일이 지난 시점인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주관한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가 개최됐다. 오후 1시께 하늘색 조끼를 입은 유가족 등 180명가량이 서울 용산역광장 앞에 모였다.

12·29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께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동체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공항시설물을 충돌해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구조된 사고다.

행진에 앞서 유가족 고재승씨는 “언제까지 국가를 믿고 기다려야 하나”며 “인터넷 악플보다 책임자들의 무책임한 모습이 유가족을 두 번 죽이며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끔찍한 2차 가해 행태”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가지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를 처벌하라’ ‘유가족이 당사자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유가족이 입은 조끼와 모자에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이 적혀 있었다. 또 티셔츠 등에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왜 179분이 돌아오지 못하셨는지...”라고 적혀 있기도 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가는 길, 유가족 사이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크게 소리 내 우는 이는 없었다. 침묵행진이었다.

유가족들은 누군가가 그려진 혹은 인화된 영정을 저마다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세계의 액자를 품어 안은 한 유가족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액자를 계속 쓰다듬기도 했다.

일부 행인들은 걸음을 멈추고 이들을 지켜봤다. 속상한 듯 입을 굳게 다문 행인도 있었다. 유가족 행렬 뒤에는 이태원 참사·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노란색 재킷을 입은 이도 눈에 띄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1시42분께 삼각지역을 지나 오후 1시 58분께 전쟁기념관 앞에 도착했다.

김유진 12·29 무안항공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179명이 왜 우리 곁에 돌아오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매일 아침 이런 참담한 하늘을 마주하는지, 10달이 지났어도 진실이 왜 우리 곁에 돌아오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보상도 특례도 아니고 오직 진실”이라고 말했다.

참사로 부모님을 떠나보낸 권민영씨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참사 원인으로 딱하기 가장 쉽다”며 “과연 조종사 과실로 버스트라이크(조류 충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이냐”고 물었다.

부모님을 잃은 유가족 박근우씨도 “누구에게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며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것도 이뤄지는 게 없다. 뭐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나온 것 아니냐”고 했다.

구로역 사망사고 유가족, 조종사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어느덧 300여명으로 불어난 참가자들은 집회 장소인 전쟁기념관 앞에 도착해서야 분노와 울음이 뒤섞인 소리를 냈다. 무대 위에 오른 두 개의 케이크를 향해 10월과 11월에 태어난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다. 생일 축하 노래도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호소문을 낭독하고, 이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참사 발생 후 308일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호소문에는 ▲지난 6월30일 공포된 특별법에는 참사 원인과 책임을 밝힐 수 있는 진상규명 조항이 없는 점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지원단)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항공·철도 사고



12·29여객기참사유가족들이1일오후서울용산구용산역앞에서영정을들고여객기추락참사에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촉구하며용산대통령실방향으로행진하고있다. /뉴스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조사위를 독립시키고 독립된 조사위에 모든 자료를 이관하며 ▲유가족과 전문가에게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

지원단이 모든 사무와 활동을 유가족 협의회와 공유하고 협의회 진행하라는 등의 요구가 담겼다.

/기동취재부

### 지면안내

- ▶ **李 대통령-시진평, “한반도 평화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 3면
- ▶ **“못 버텨” 광산구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병가 9배 급증** 9면

## ‘APEC 끝’ 대통령실, AI컴퓨팅·공하이전 해법찾기 나서나 광주시 “AI컴퓨팅 유치하는 대통령의 약속” “지난 6월 타운홀 미팅 때 공하이전 거론”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고 있는 광주 현안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센터와 민간·군공항 이전이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종료 직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실의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준비한 도시부터 지원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실질적인 대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를 방문한 김 실장 등이 APEC 정상회의의 종료 이후 광주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와 광주민간·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실무단을 구성하고 요구안 등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할 계획이다.

우선 유치에 실패해 현 정부에 대한 지역 민심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공청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컴퓨팅센터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광주가 오랫동안 인공지능 분야를 준비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전환(AI) 분야, AI연구소 등을 준비된 지 역부터 설립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강기정 광주

시장이 광주를 방문한 김 실장을 만나 “국가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구축해달라”는 지역의 민심을 전달했으며 “하정우 AI미래기술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논의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 대통령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 “광주를 AI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광주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AI컴퓨팅센터 문제와 별개로 광주를 미래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역을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시설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기대를 모았지만 지난달 21일 진행된 공모에서 안 등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할 계획이다.

광주민간·군공항 무안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열쇠도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 그동안 광주공항 무안 이전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던 중 지난 6월25일 이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미팅을 통해 새국면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통령실 차원에서 검토한 뒤 광주시와 전남도·무안군·국방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6자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지만 4개월여가 지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광춘 기자

## 김영록 “지역 강점 살려 동북아 탄소중립 실현 중심될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33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남, 부산,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와 나가사키, 후쿠오카, 야마구치, 사가 등 일본 4개 현이 한·일해협연안 지역 발전과, 도시 공동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올해 회의는 ‘지속가능 발전목표(UN-

SDGs)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일 간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를 위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비전을 소개했다. 산업 저탄소 전환과 재생에너지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에너지대전환 선도, 블루·그린카본 등 탄소흡수원 확대, 녹색생물 실천 문화 분위기 확산 등 4개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염선호 기자

Self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01호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협(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